

작가 소개자료 | 강영길

[작가 소개]

20여 년간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해왔고, 최근 영상과 Generative Art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아트) 등 동시대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 영역을 확장 시켜 나가고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오랜 시간 제가 탐구해온 것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체가 전복되어 가는 현대 세계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고독과 공포, 그리고 새롭게 정의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초기 작품들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 그리고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 자리하며 저만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 유학시절 영향이 컼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케일 있는 전시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만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인간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내면성을 드러내기 위해 물속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빛과 물로 인해 왜곡된 형상의 이미지를 다시 디지털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저만의 추상 언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트사이드 북경’, ‘가나아트파크’, ‘영은미술관’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 동안 미술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갔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시를 개최한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품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작업 환경이 한정되어 있어 강렬한 빛과 물을 찾아 2019년에 1년간 세계 여행을 떠났고 **상해, 유럽, 미국 등 약 10여 개국을 다니며 작업 소스를 만들고 각국의 예술가, 공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사이트를 얻어 새로운 미디어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한층 깊어지고 평면 작업을 미디어 작품으로 확장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상상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개발자, 엔지니어, VFX 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미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 유명 VFX 회사 ‘WestWorld’ 와 함께 첫 번째 Generative Art Project에 도전해 약 3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미디어 작업과 함께 기존 평면 작업들을 더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작가 노트]

오랜 시간 회화가 구상으로부터 추상으로 바뀌어 온 이유는 인간의 내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20여 년 동안 나는 물속의 인물을 탐구해 왔고, 물의 파동과 빛의 효과로 인해
형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내면성을 관찰했다. 그리고 내면성에 대한 탐구는
현대 문명 속 인간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현대 세계는 디지털 기반의 멈추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간의 생명 윤리 조차도 새롭게 정의 되는 시대이다.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고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이미 변해버려 원래의
가치로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체성은 희미해져만 간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끝없는 복제가 일어나는 곳
원본과 복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는 곳, 가상 세계.

그곳은 세계의 시작이자 세계의 끝이다.
그곳에서는 세계의 끝의 바람이 불고, 세계의 끝의 냄새가 난다.

한 세계가 시작되고 한세계의 끝에 서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새롭게 정의되고 구성되는 의미를 시각화 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고자 한다.”

[작품 시리즈 1]

LIMBO

Digital Painting

사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회화

디지털 요소가 만들어낸 묘한 공간감과
회화적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인
작품

림보 시리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사와
추상의 이미지가 공존하며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시리즈 2]

MONOLITH

Digital Dessin

흑백의 선과 파티클로 데생하듯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미지의 레이어를 겹쳐내어 인
물 속 또다른 세계의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완성한 작품



[작품 시리즈 3]

Quantum Streakline

Generative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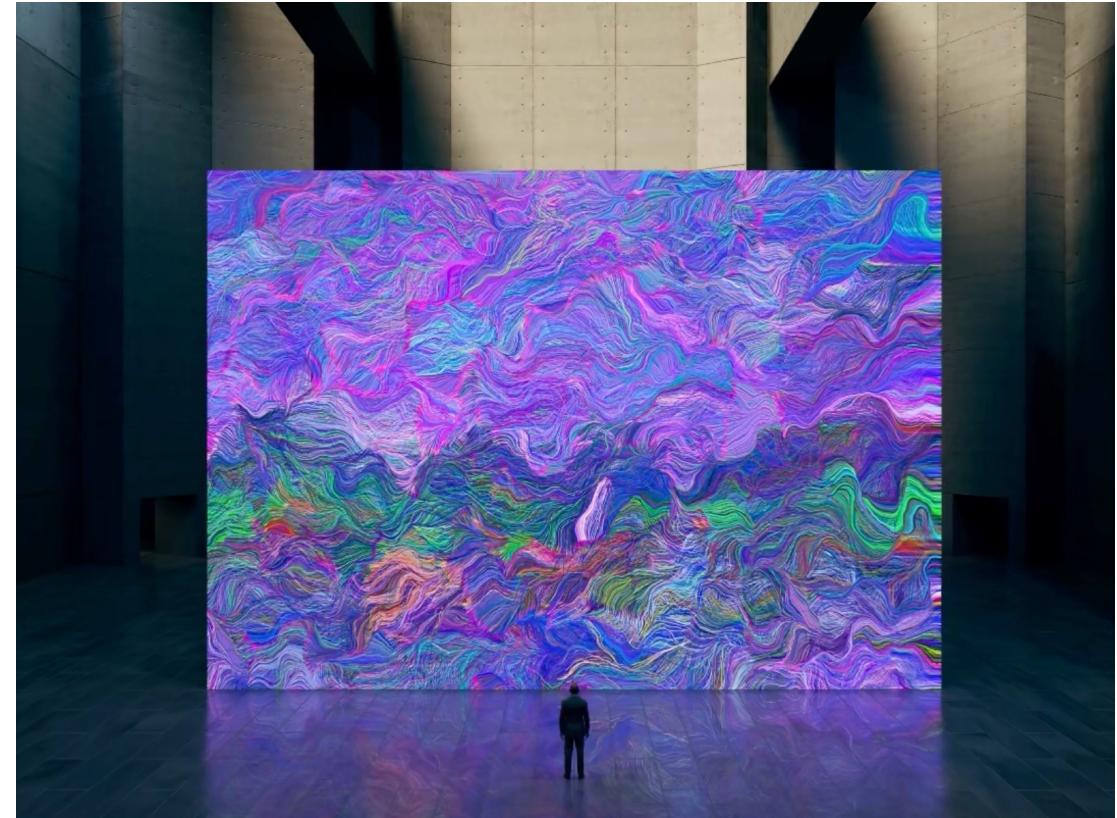
이 작품은 형태를 최소 단위로 분해한 Quantum dot의 궤적이 만들어 낸 형상이다.

각각의 점이 다양한 색의 조합을 형성하며 랜덤한 곡선을 그리고 그 움직임의 에너지가 끝 없는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파동은 모든 것이 상실되고 해체된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력’이 형형색색의 입자로서 생을 갈구하는 듯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일 수 밖에 없음’을 희구(希求)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몸짓이다.



▪ Quantum Streakline



시뮬레이션 이미지

■ Quantum Streakline



Quantum Streakline, 2023
Generative Art



Quantum Streakline, 2024
Printed on paper



■ Quantum Streakline



Quantum Streakline, 2022

VOD

JTBC 프로그램



Quantum Streakline, 2023

Generative art,

Single channel digital work,

180x300cm, overall installed,

projector

Edition of 150

[전시]



2019 영은미술관



2021 Gallery M9

[전시]



2019 artCN Gallery / 상해



2019 Photo fair Shanghai/ 상해

[전시]



2017 텐리갤러리 / 뉴욕

[평론]

Culture Catch Mary Hrbaek



Art can be unfathomable; here there is a force that forges far beyond a Sunday religious experience into an unnamable domain where philosophical musings reach their boundaries. These works begin to flow into an allegorical realm in which water is both damning and cleansing. They convey us through the phases of life's slippery slope, where eventually there is no return. We go forward, or down into a place we created out of our own volition, in a life of constant enticement that is too strong to resist. I interpret these works as metaphorical stages, or incidences of temptation that confront us universally in all our lives. The outcomes we create from our decisions are documented in the liquid grave-like confines that flow in perpetuity with energy and life. In alchemical lore, the mercurial sea symbolizes the function of female transformational powers; drowning in volatile liquid is linked to amniotic fluid that suggests the "stage before a state of rebirth, death and the first gasp of breath." (*The Book of Symbols, Water* p. 33)

our lives. The outcomes we create from our decisions are documented in the liquid grave-like confines that flow in perpetuity with energy and life. In alchemical lore, the mercurial sea symbolizes the function of female transformational powers; drowning in volatile liquid is linked to amniotic fluid that suggests the "stage before a state of rebirth, death and the first gasp of breath." (*The Book of Symbols, Water* p. 33)

When photography was initially invented, figurative artists feared they would become outdated as photography so readily captures the visual reality of the physical world. But artists like to put their own stamp on their visions and processes. Perhaps it is not perceived as challenging or fulfilling to merely snap a picture. The photographs on view are anything but easy. They are profound symbolic representations of life as we progress toward our eternal fate. They are more like atmospheric paintings than paintings themselves. Such is the kaleidoscopic evolution of the individual artist as he carves his way through the tangled maze of art history to find and make his own enduring mark on his genre. Kang succeeds emphatically. -
Mary Hrbacek

Ms. Hrbacek is an artist who has been writing reviews of NY art exhibitions since 1999; she has covered shows in almost every museum in town.



Huffpost D.Dominick Lombardi

LIMBO: Young Gil Kang at the Tenri

03/08/2017 12:17 pm ET



Youngil Kang, LIMBO (2017), pigment-print on rice paper, 59 x 57 inches

LIMBO: Young Gil Kang, the current exhibition at the [Tenri Cultural Institute](#) in New York City, challenges the viewer's sense of truth in a very curious way. It presents, what to most would be an unfamiliar, even worrisome situation of the apparent suspension of life and breath, but not the termination of free thought. A suspension of life as all of Young Gil Kang's subjects here are reclining women situated at or near the bottom of a pool of crystal clear water where there is in fact, no air for human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I believe these women in these photographs are deeply thoughtful individuals caught in "Limbo", as the artist and exhibition's title implies. I say this as I imagine they all are experiencing enhanced brain activity as the corporal connections that the body and mind must make to come to terms with their situation come to the fore.

Printed on oversized sheets of rice paper in rich color, the artist's photographs show us a view from above, as we look down upon the aquatic settings as willing participants who appear to be as detached from their circumstances as is humanly possible. Is this mind over matter? Are all these women in an altered state where the heart slows so that air is not as essential to life as it was moments before?

[평론, 프레스]

레디메이드에서 디지털 감성으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나는 박사였던 것이다. 그 무렵 대학
원에 입학당한 한 명 들어왔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딸기주스를 소유
한 친구였다. 이어서 그는 사진학에
나 디자인, 사진과 철학을 가지고 서
풀고 싶어 했다. 그러나 20세기로 들어
온 디자인의 디자이너들은 이미 만들어진
(ready-made) 소작주를 폐자전거, 한 신
발 등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삶이 피폐해지면,
중국에는 예술도 사악화된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변모되는 세상에

다시금 '부여형' 시장에서의 소리로도
알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경상적인 암울과 희망
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대화에 드는
어려움과 밸런스를 찾기 위해 경상(경애)에
이어졌다 보니 스트리밍을 함께 하면서
그 후에나 천진해졌다.

한자는 내가 물었다. “사진기를 빼고
서 세상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을 때,
가장沖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어디
였나?” 당시인 사진학자로서 남양적인
사진 여행을 했을 거라 기대하면서 드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로부터
들려온 답변은 전연 상상하지 못한 것
이었다. “당신, 요즘 사진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컴퓨터에
아예 포토샵 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행여 생각해도 사진학과의 모습
은 평소에 드러나시나요?”

예술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

일례로 20년 전 *서울로707*와 서울역
광장에 한 번은 3000명이 넘는 ‘우즈
트리’(행복 작가가 설치한 나무) 있
거나, 17m, 35m, 100m, 모두 최초로
대형 설치 작품이다. ‘이제 예술이
나’는 불분명해졌다. 단지 맘에 헌신해
슬픈 그 림 속에 있는 작품들은 부
정할 수 없다. 마른본우의 「생」
이후, 예술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린 레
디미어드 작곡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
스러운 축이지만, 앞으로 다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레디미어드적 감성, 이것은 20세기에
발달한 예술의 현대화 감성이다. 그러나
다만 21세기는 특징으로는 예술과 동등
은 무어야 한다는 점을 두고 있음을 경계
를 넘버트 “환경”이 살피며 말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1세기 예술가와 미학자들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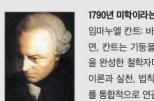
아이도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당시 키스 세계를 벌였는 것 같다. 예술가에게 고백적인 미적 맥락에서 이루어낸 부모와의 관계였으나 말이다. 사실 시선과 바람에 빠졌다며 예술 및 예술가의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시선 예술 중심으로 이이기기를 해 보면서 고백과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소제로 구애받았다. 그게 취향과 그의 수준에 맞았는지 조각가는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이후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완화되는 경향은 무엇인가? 짐작나니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자일 배체 속이다. 빙판과 하드판도, 2000년대 이후 컴퓨터와는 거리가 있어서 컴퓨터에서 전자책을 읽고 논문을 검색하고 글을 쓴다. 블립터님 수첩을 통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편집하는 것이다. 그게 유통망과 소비자에게 표면화된 것이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강영길, 「US-손 볼 사람」, 강영길은 EFET(E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privee) PARIS 사진과 출판을 전공한 예술가이다. 그는 2015년 미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6년에는 미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7년 뉴욕의 텐리 갤러리 초대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수 라, 수학적·논리적 언어다. 디지털은
은 이런 언어를 통해 구성을 자동화하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언어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그림마저도 자유자재로 구현
할 수 있다. 디지털로 구현된 이미지는
선 단위가 비트로 처리되므로 디지털
언어라고(=analog)는 사물을 “연속”으
로 변환하고 나온다. 대 반해, 디지털은
점집과 함께 불연속적이게 정보를 수치화
하는데 탄생했다. 디지털 둔자체계는 거의
하제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가동시키는
데 있다. 애니메이션 세계의 배후에는 디
지털 문자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은 최적의 매체



1

고서 작
로 들어
들이진
. 현신

삶이 피폐해지면,
종국에는 예술도 사막화된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변모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역
「슈즈
21세기 예술가와 미학자들은
이 문제로 풀어버려 써야 것이다

이 있
의 조
예스이
대미
은 부
『생』
데리 레
자연
흐름은

세계에
그 그렇
되 동향
경济학
가 될
할 것도 없다. 이런 예술기도 바찬가지로
트로 수업을 한다. 10년 전부터 스마

나남에 지
면화는
기여가 생
체제 속
에 이후
생인다.
유하, 수학
파. 수학
수복화 등
다양한
색조와
빛깔을 자
자로써 구
구사한다.
이전 모도
디디털
세계에 뿌
리내리고
있기에 가능
한 일이다.
그의 작품
「Us-손
볼 사람」



KBS NEWS 9
2018. 6. 28



아리랑 TV, Arts Avenue

2016. 11. 3

한 이항 코드를 사용한다. 이것은 동률에 기반을 둔 이분법적 논리형식이다. 당연히 이 언어는 자연언어가 아

도
일
이
니
니시월든 클락
체화를 실현한다.
디지털 정보
를 신경과 뇌

MBC 문화사색, Art Story
2019. 5. 16



행복이 가득한 집
2018. 7

[평면작품 작업 과정]





Youngkil Kang 강영길

Artist based in Seoul, Korea

Education

- 1999 B.A. in Photography, E.F.E.T(E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privee) PARIS
1995 Diploma, majored in Photograph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sidency

- 2016-2018 Young Eun Museum, Gyeonggi-do Gwangju
2011-2016 Gana Art Gallery, Jangheung
2008-2009 ARTSIDE Gallery, Beijing

Solo Exhibitions

- 2021 Gallery M9, Seoul
2020 Woong Gallery, Seoul
2019 Young Eun Museum, Gyeonggi-do Gwangju
2018 Woong Gallery, Seoul
2017 Tenri Gallery, New York
2016 Young-eun Artist Project, Gyeonggi-do Gwangju
2016 Hangaram Art Museum, Seoul
2015 Gana Art Contemporary, Seoul
2013 Insa Art Center, Seoul
2011 Gana Art Contemporary, Seoul
2009 Insa Art Center, Seoul
2009 Gallery ARTSIDE, Beijing
2009 Dusan Art Square, Seoul
2007 Gallery ARTSIDE, Seoul
2001 How Art Gallery, Seoul
2000 Seonam Museum, Seoul

Group Exhibitions

- 2019 XXL, ArtCN Gallery, Shanghai
2019 The 3rd Image, Kim Chong Young Museum, Seoul
2016 Korea France Amity130 Anniversary Exhibition, Young Eun Museum
2014 Layer of Memory ARTSIDE, Seoul
2014 Liun Gallery, Seoul
2014 Dangin-ri Art Festival, Seoul
2013 SETEC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ists, Seoul
2013 Pyeongchang cultural forum Exhibition, Gana Art Center, Seoul
2010 Yeosu International Art Fair, Yeosu
2010 Art Edition 2010, Busan
2010 Jangheung Art Market 'JAM', Jangheung
2005 ART SEOUL, Seoul Arts Center, Seoul
2001 Odyssey, Changwon
2001 How Art Gallery Collection, Seoul
1999 E.F.E.T Graduate Exhibition, Paris, France
1999 Salon de Montrouge Museum, France